

## (주)글로벌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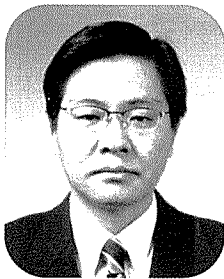
### 디지털방송의 선두 벤처기업

(주)글로벌테크(대표 차희규)는 96년 6월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장을 주도할 세계 최고의 방송수신기(Set Top Box)전문제조업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세계적 방송장비업체를 만들겠다는 야심이다.

(주)글로벌테크는 중소기업이지만, 연구원이 15명으로 총종업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7%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작지만 알찬기업이다.

(주)글로벌테크는 100% 수출기업으로 98년 위성방송수신기(Satellite Set Top Box)를 미국과 남미지역에 450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99년 증동으로 확대해 599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으며, 2000년에는 유럽까지 진출해 1,3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차희규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위성방송수신기 전문기업에서 12년 5개월의 경력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송수신기의 전문기업을 만들고자 1996년 6월 회사를 설립하였다. 차희규사장은 위성방송수신기 전문기업에서 재직하면서 위성방송수신기의 개발과 영업의 전문가로 통했다. 특히 미국 General Instrument사 사업을 담당했으며, 1994년에는 미국 Scientific Atlanta사에 디지털 STB 20만대를 수주하였다. 1994년과 1995년 2년간 위성방송수신기 180만대를 수출할 만큼 수출 영업도 뛰어나다.



- 대표 : 차희규
- 본사 : 경기 군포시 당정동 474  
(삼동프라자 604호)
- TEL : 031-453-0054
- FAX : 031-453-0057
- http://www.globaltec.com
- 주요생산품목 : 인공위성수신기

이러한 차희규사장이 그간의 시장예측,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며 내 건 기치는 "Creativity and Speed in Mega Competition", 국경없는 거대한 경쟁에서 창의적인 제품을 보다 빠르게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테크는 사업 초기 ANALOG 위성방송수신기의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고속성장하였다.

1998년 하반기부터는 지상파 방송수신기인 HDTV 수신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말 국내 중소기업 중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외 HDTV 수신기의 시장형성이 안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으면 사업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DIGITAL 위성방송수신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계획보다 빠르게 양산에 성공하였고, 이와 관련된 (주)글로벌테크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 FTA, CI 개발을 완료하고, Embedded C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PVR(Personal Video Recorder)과 셋톱박스를 결합한 제품과 미들웨어를 탑재하여 쌍방향 전송(Interactive)이 가능한 제품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다가올 디지털 방송시대에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Embedded 에 쓰이는 디코딩 기술이나 미들웨어들을 적용 하기 위해 적지 않은 개런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직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으로서는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주)글로벌테크는 세계적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업체로 유명한 미국의 루슨트 테크놀로지사(Lucent Technologies)에 HDTV 및 셋톱박스 기술을 인정받아 그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지난 2000년 3월 세계적 방송장비 업체인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의 방송국 장비에 대해 국내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및 방송장비관련 협력계약을 이룩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테크는 디지털 위성방송 및 HDTV 수신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쌍방향 전송 셋톱박스 기술 및 PVR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방송장비와 관련해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방송장비 업체로 나아가고자 한다.

